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지원 현황 분석과 개선과제

| 김지현

1. 배경과 문제제기
2.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지원 현황
3.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지원에 대한 부모의 요구
4. 정책제언

참고문헌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지원 현황 분석과 개선과제¹⁾

김지현 연구위원

SUMMARY

-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의 사회·정서 발달을 위해 가정, 보육·교육기관, 지역사회가 제공하고 있는 지원현황을 분석하여, 사회·정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함.
-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 및 면담을 진행하여, 부모들이 인식하는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의 중요성과 어려움, 가정에서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을 위해 하는 노력들을 파악함.
- 부모가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개선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영역, 사회·정서 발달에 있어서 부모와 교사가 걱정하는 점 등을 살펴보고 부모가 인식하는 지원 영역을 파악해 봄.
- 따라서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지원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 지원 환경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본 원고는 2023년 진행된 '김지현·조숙안·김영민(2023).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지원 서비스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아울러 본고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힘.

1 배경과 문제제기

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지원 필요성 증대

▶ 코로나시기 대면 경험의 부족으로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우려 증가

- 최근 3년간 COVID19 시기를 겪고 아동들이 타인과의 교류를 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사회·정서 측면의 역량을 쌓을 기회가 줄어들었음.
- 코로나로 인해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 의사소통, 대인관계 어려움 및 자기정서조절, 정서표현의 어려움 등 사회성과 정서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음(황혜영·김수윤, 2022).
- 또한 2024년 진행된 연구에서는 유아 및 아동 전문가 대상으로 코로나시기의 유아 및 아동의 발달문제에 대한 델파이 조사결과, 코로나 영향으로 유아 및 아동의 발달영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사회성'으로 나타나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함(김리진·조선화·채은영·홍서은, 2024).

▶ 또한, 인지교육, 언어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경향 증가.

-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를 거치면서, 기쁨, 분노, 슬픔 등의 기본적인 정서에서부터, 두려움, 수줍음, 낮가림, 죄책감, 등의 정서가 발달하는데, 이러한 정서의 발달은 특별한 학습의 대상이라기보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임.
- 이에 반해, 언어, 수리 능력은 적절한 연령대의 발달능력을 넘어서는 교육을 진행하여 영유아 시기부터 지나친 인지교육을 강조하는 풍토가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이 자신의 감정,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는 과정인 사회·정서학습(Social Emotional learning)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나.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지원의 한계

▶ 사회·정서발달이 성장과 함께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부모와 기관의 관심과 교육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함.

- 사회·정서발달은 신체, 언어, 인지 발달과 함께 아동발달에 있어서 기본적인 발달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신체, 언어, 인지발달과는 달리 사회·정서적 발달은 연령별 발달목표가 명확하지 않아, 부모입장에서의 적절한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 또한,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교육의 인식이 있다하더라도,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이나 초등학교에서도 사회·정서적 발달에 있어서는 뚜렷한 교육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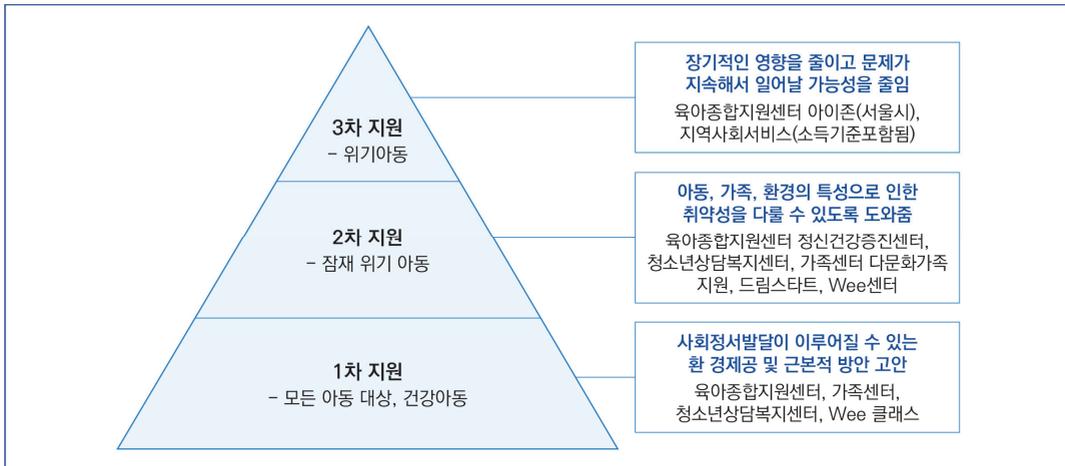
2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지원 현황

가. 사회·정서 발달 지원 대상 아동 구분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서 발달 측면에서 지원의 대상을 다음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음(김지현·조숙인·김영민, 2023: 64).

- 현재 드러나는 문제는 없지만 건강한 발달이 지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건강아동 대상의 지원 (1차 지원)
- 사회경제적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취약한 가정 대상의 프로그램이나 사회·정서행동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 아동 대상 검사 및 상담 등의 지원 (2차 지원)
- 사회·정서행동 검사에서 소견서를 받거나 진단을 받은 아동 대상의 집중 치료 등의 지원 (3차 지원)

[그림 1] 아동 사회·정서 발달지원 서비스의 대상에 따른 분류



자료: 김지현·조숙인·김영민(2023)의 사회·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대상에 따른 분류 그림을 인용함. p.64.

ChildWelfare Information Gateway. 아동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틀의 내용을 응용하여 연구진이 구성함.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preventing/overview/framework/> (2023. 9. 1. 인출)

나. 연령별 지역사회 유관기관 서비스 지원 내용

아동(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의 사회·정서 발달을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지원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그림으로 정리하였음.

-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지원의 경우는 영유아대상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의 사회·정서발달 프로그램(센터별로 있을 경우에 한해)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의 심리상담 지원은 만 9세부터가 대상이어서 실질적으로 만 6-8세까지의 초등 저학년에 해당하는 연령이 사각지대로 파악됨.

- 학교에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Wee 클래스의 경우는 초등학교의 경우 모든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용대상은 모든 아동이나, 실질적으로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등에서의 관심군을 대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그림 2] 사회·정서 발달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지원 체계



자료: 김지현·조숙인·김명민(2023) 연구의 사회·정서발달 연령별 유관기관 지원서비스 체계도를 인용함. p.238.

- 취약한 사회경제적 환경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저소득층 대상의 드림스타트 사업, 다문화가족 대상의 문화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사업 등이 있음.

3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지원에 대한 부모의 요구

- ▶ 본 연구에서는 24~36개월 미만 영아 자녀 가구가 90명, 36개월~미취학 유아 자녀 가구가 618명, 초등학생 1~3학년 자녀 가구가 704명으로 총 1,4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사회·정서 발달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부모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함.
- 조사의 목적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에 대한 인식, 이해, 걱정의 정도를 파악하고, 가정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함임.

가. 부모의 사회·정서 발달에 대한 인식

- ▶ 부모를 대상으로 사회·정서 학습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묻은 질문에는 전체의 90.2%가 들어보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어머니의 94.2%, 아버지의 83.3%가 들어보았다고 하여 어머니의 인식이 높았음.

[표 1] 사회·정서 학습의 인지도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전체	90.2	9.8	100.0 (1,412)
자녀와의 관계			
어머니	94.2	5.8	100.0 (890)
아버지	83.3	16.7	100.0 (522)
$\chi^2(df)$	43.434(1)***		

- ▶ 사회·정서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에는 전체의 49.9%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영유아(46.0%)보다 초등저학년(53.8%)이 사회·정서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표 2] 사회·정서 학습의 필요성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1	0.4	11.5	38.2	49.9	100.0 (1,412)	4.4(0.7)
아동 연령							
영유아	0.0	0.7	11.6	41.7	46.0	100.0 (708)	4.3(0.7)
초등저학년	0.1	0.0	11.4	34.7	53.8	100.0 (704)	4.3(0.7)
			14.823(4)**				-2.4*
자녀와의 관계							
어머니	0.0	0.2	8.5	33.9	57.3	100.0 (890)	4.5(0.7)
아버지	0.2	0.6	16.5	45.4	37.4	100.0 (522)	4.2(0.7)
$\chi^2(df)t$			58.462(4)***				7.7***
학력							
고졸	0.0	0.0	20.5	37.7	41.8	100.0 (146)	4.2(0.8)
대졸	0.1	0.4	10.6	38.0	51.0	100.0 (1,059)	4.4(0.7)
대학원 재학 이상 /기타	0.0	0.5	9.7	39.6	50.2	100.0 (207)	4.4(0.7)
$\chi^2(df)/F$			15.098(8)				4.4*
가구소득							
200~400만원 미만	0.3	0.9	15.6	38.3	44.9	100.0 (334)	4.3(0.8)
400~600만원 미만	0.0	0.2	11.8	37.5	50.5	100.0 (549)	4.4(0.7)
600~800만원 미만	0.0	0.3	8.3	41.1	50.3	100.0 (302)	4.4(0.7)
800만원 이상	0.0	0.0	8.8	35.7	55.5	100.0 (227)	4.5(0.7)
$\chi^2(df)/F$			20.554(12)				4.3**

* $p < .05$, ** $p < .01$, *** $p < .001$

주: 5점 척도임.

- ▶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의 사회·정서 증진을 위해 하는 노력을 물어보았는데, 1순위 응답 기준 자녀와의 대화노력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영유아 부모의 경우 자녀와의 대화노력이 35.2%, 보육교육기관이용이 24.9%, 또래친구 놀이기회 제공이 13.8%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고, 초등저학년의 경우 자녀와 대화노력이 39.5%로 가장 높았고, 예체능 학원 이용이 19.7%, 또래친구 놀이기회 제공이 16.2%로 다음으로 나타남.
- ▶ 자녀 연령을 떠나 자녀와 대화를 통한 사회·정서적 능력함양을 위한 노력을 가정에서 하고 있으며, 보육교육기관이나 예체능 학원 또는 또래친구놀이 기회제공을 통해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노력을 함.

[표 3] 자녀의 사회·정서 증진을 위해 하는 노력

단위: %(명)

구분	보육 교육 기관 이용	예체능 학원 이용	또래친구 놀이 기회 제공	가족 여행	자녀와 대화 노력	전문 상담 기관 이용	아무 노력 하지 않음	계(수)
1순위 전체	16.7	14.7	15.0	11.8	37.3	3.4	1.1	100.0 (1,412)
아동 연령								
영유아	24.9	9.6	13.8	12.6	35.2	2.5	1.4	100.0 (708)
초등저	8.5	19.7	16.2	10.9	39.5	4.3	0.9	100.0 (704)
$\chi^2(df)$	89.030(6)***							
자녀와의 관계								
어머니	17.2	11.6	14.3	11.5	40.7	3.5	1.3	100.0 (890)
아버지	15.9	19.9	16.3	12.3	31.6	3.3	0.8	100.0 (522)
$\chi^2(df)$	25.322(6)***							
취·학업 상태								
맞벌이	16.6	16.9	14.8	11.7	35.1	4.1	0.7	100.0 (675)
홀벌이	15.8	12.2	15.2	11.9	40.7	2.7	1.6	100.0 (691)
둘 다 미취업	32.6	19.6	15.2	10.9	19.6	2.2	0.0	100.0 (46)
$\chi^2(df)$	25.132(12)*							
가구소득								
200~400만원 미만	21.6	14.4	17.4	8.1	33.8	3.3	1.5	100.0 (334)
400~600만원 미만	15.1	13.5	15.8	12.8	37.7	3.6	1.5	100.0 (549)
600~800만원 미만	16.2	19.2	13.6	12.3	35.1	3.3	0.3	100.0 (302)
800만원 이상	14.1	11.9	11.5	14.1	44.5	3.1	0.9	100.0 (227)
$\chi^2(df)$	29.268(18)*							
사회·정서 발달서비스								
경험 여부								
경험 있음	18.7	16.7	14.6	11.4	30.6	7.3	0.7	100.0 (604)
경험 없음	15.2	13.1	15.3	12.0	42.3	0.5	1.5	100.0 (808)
$\chi^2(df)$	67.420(6)***							
1+2순위 전체	24.3	30.3	38.2	36.6	58.6	9.1	1.1	100.0 (1,412)

* $p < .05$, *** $p < .001$.

나. 부모가 인식하는 중요한 발달 및 양육 영역

- ▶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발달 및 양육 영역에 대해서 물었는데, 1순위 전체 기준으로 57.1%가 사회·정서발달이 가장 중요하고, 생활습관형성/유지가 25.2%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음.
 - 영유아 자녀보다 초등 저학년 자녀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고졸 이하인 부모보다 고졸 이상인 부모가, 사회·정서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부모의 경우 사회·정서 발달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표 4]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육 영역

단위: %(명)

구분	생활습관 형성/유지	신체 발달	사회·정서 발달	인지 발달	언어 발달	계(수)
1순위 전체	25.2	8.9	57.1	5.2	3.7	100.0 (1,412)
아동 연령						
영유아	25.3	9.6	55.1	4.8	5.2	100.0 (708)
초등저	25.1	8.1	59.1	5.5	2.1	100.0 (704)
$\chi^2(df)$			11.457(4)*			
자녀와의 관계						
어머니	27.2	7.2	58.2	4.0	3.4	100.0 (890)
아버지	21.8	11.7	55.2	7.1	4.2	100.0 (522)
$\chi^2(df)$			18.306(4)**			
학력						
고졸 이하	24.7	11.6	47.9	4.1	11.6	100.0 (146)
대졸 이하	25.3	7.8	58.7	5.6	2.5	100.0 (1,059)
대학원 재학 이상 /기타	25.1	12.1	55.1	3.9	3.9	100.0 (207)
$\chi^2(df)$			37.926(8)***			
사회·정서 발달서비스						
경험 여부						
경험 있음	25.3	9.9	53.3	5.3	6.1	100.0 (604)
경험 없음	25.1	8.0	59.9	5.1	1.9	100.0 (808)
$\chi^2(df)$			21.169(4)***			
1+2순위 전체	51.4	23.7	83.4	27.9	13.6	100.0 (1,412)

* $p < .05$, ** $p < .01$, *** $p < .001$

- ▶ 부모가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인식한 사회·정서 발달 영역을 기질, 애착, 정서이해, 정서조절, 자아개념/자존감 증진, 또래관계 기술습득, 공격성 완화 등으로 세부 영역을 나누어 가장 발전시키거나 도와주고 싶은 영역을 물었을 때, 1순위 응답 기준으로, 자아개념/자존감 증진이 24.1%로 가장 높았고, 기질이 22.2%, 정서조절이 20.9% 순으로 나타남.
 - 영유아 자녀 부모의 경우 기질 24.6%, 정서조절이 21.6%에 대한 도움 순으로 필요하다고 하였고,

초등저학년 자녀 부모의 경우 자아개념/자존감 증진 27.4%, 정서조절 20.2% 순서로 자녀 연령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사회·정서 발달의 세부 영역이 달라 연령별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표 5]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 영역 중 가장 발전시키거나 도와주고 싶은 영역

단위: %(명)

구분	기질	애착	정서 이해	정서 조절	자아 개념/ 자존감 증진	또래관계 기술 습득	공격성 완화	계(수)
전체	22.2	11.0	15.1	20.9	24.1	5.7	1.0	100.0 (1,412)
아동 연령								
영유아	24.6	11.6	14.7	21.6	20.8	5.2	1.6	100.0 (708)
초등저	19.7	10.5	15.5	20.2	27.4	6.3	0.4	100.0 (704)
$\chi^2(df)$	16.240(6)*							
자녀와의 관계								
어머니	25.1	9.2	11.7	24.7	21.9	6.4	1.0	100.0 (890)
아버지	17.2	14.2	20.9	14.4	27.8	4.6	1.0	100.0 (522)
$\chi^2(df)$	58.304(6)***							
가구소득								
200~400만원 미만	21.6	11.4	14.4	22.5	22.2	6.0	2.1	100.0 (334)
400~600만원 미만	22.2	13.1	15.1	20.0	24.2	4.2	1.1	100.0 (549)
600~800만원 미만	24.8	9.9	14.9	17.9	24.2	7.9	0.3	100.0 (302)
800만원 이상	19.4	7.0	16.3	24.7	26.4	6.2	0.0	100.0 (227)
$\chi^2(df)$	25.145(18)							
사회·정서 발달서비스 경험 여부								
경험 있음	19.9	12.1	17.9	21.7	20.7	7.5	0.3	100.0 (604)
경험 없음	23.9	10.3	13.0	20.3	26.6	4.5	1.5	100.0 (808)
$\chi^2(df)$	24.403(6)***							
1+2순위	37.5	17.5	33.0	45.0	47.3	15.7	4.1	100.0 (1,412)

* $p < .05$, *** $p < .001$.

다. 부모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우려

▶ 부모가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에 대해 우려했던 경험과 보육·교육 기관을 통해 우려의 말을 들은 경험을 묻은 결과, 부모가 우려했던 경험이 65.5%임에 비해, 보육·교육 기관으로부터 우려의 말을 들은 경험은 26.4%로 현저히 낮았음.

- 부모가 우려했던 경우는 남아의 경우, 어머니가 응답한 경우, 소득이 낮은 경우 중소도시나 읍면에 거주할 경우,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해 우려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기관으로부터 언급을 들은 경우는 남아인 경우, 아버지가 응답한 경우, 둘 다 미취업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남.

[표 6]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관련 우려 경험

단위: %(명)

구분	스스로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관련 걱정된 경험		교육·보육기관으로부터 사회·정서발달 관련 우려의 말을 들은 경험		계(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체	65.5	34.5	26.4	73.6	100.0 (1,412)
아동 성별					
남아	69.8	30.2	30.1	69.9	100.0 (708)
여아	61.2	38.8	22.7	77.3	100.0 (704)
$\chi^2(df)$	11.427(1)**		9.830(1)**		
자녀와의 관계					
어머니	68.2	31.8	24.2	75.8	100.0 (890)
아버지	60.9	39.1	30.3	69.7	100.0 (522)
$\chi^2(df)$	7.723(1)**		6.321(1)*		
가구소득					
200~400만원 미만	71.3	28.7	28.7	71.3	100.0 (334)
400~600만원 미만	65.9	34.1	26.0	74.0	100.0 (549)
600~800만원 미만	63.9	36.1	25.5	74.5	100.0 (302)
800만원 이상	58.1	41.9	25.1	74.9	100.0 (227)
$\chi^2(df)$	10.714(3)*		1.299(3)		
거주지역					
대도시	62.0	38.0	25.8	74.2	100.0 (682)
중소도시	68.7	31.3	27.1	72.9	100.0 (623)
읍면지역	69.2	30.8	26.2	73.8	100.0 (107)
$\chi^2(df)$	7.105(2)*		0.296(2)		
취·학업 상태					
맞벌이	66.7	33.3	29.0	71.0	100.0 (675)
홀벌이	64.5	35.5	23.3	76.7	100.0 (691)
둘 다 미취업	63.0	37.0	34.8	65.2	100.0 (46)
$\chi^2(df)$	0.809(2)		7.495(2)*		
사회·정서 발달서비스 경험 여부					
경험 있음	79.0	21.0	43.7	56.3	100.0 (604)
경험 없음	55.4	44.6	13.5	86.5	100.0 (808)
$\chi^2(df)$	84.680(1)***		162.370(1)***		

* $p < .05$, ** $p < .01$, *** $p < .001$

▶ 부모가 보육·교육 기관에서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관련으로 걱정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물었을 때의 결과는 <표 6>과 같음.

- 부모가 걱정하는 내용으로는 기질적 까다로움(42.8%), 수줍음 및 대인상황 기피(40.2%)에 대한 걱정이 높았으며, 보육·교육 기관에서는 주로 정서조절의 어려움(35.0%)이나 수줍음 및 대인상황 기피(34.2%)에 대한 걱정이 높음.

[표 7]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관련 걱정 내용(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기질적 까다로움	수줍음 대인상황 기피	자신감 없고 무기력	주양육자와 불안정한 애착	낮을 가리지 않음	정서 조절 어려움	타인정서 고려하지 못함	다른 아동 때리거나 괴롭힘	(수)
부모	42.8	40.2	18.7	13.1	17.1	26.8	31.1	5.0	(925)
기관	28.9	34.2	23.0	16.3	27.3	35.0	15.5	5.1	(374)

주: 부모가 우려한 사회·정서발달 관련 걱정내용과, 기관에서 우려한 사회·정서발달 관련 걱정내용을 기술함.

▶ 다음은 심층면담을 통해 부모가 인식한 사회·정서 문제를 살펴본 결과 ‘언어발달 지연으로 인한 사회·정서문제’, ‘형제/자매/가족 관계’, ‘또래관계의 어려움’, ‘불안/행동문제, 도덕성’ 등으로 나타났음.

• 언어발달 및 소통

- 영유아의 경우 언어발달 지연이 친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우려는 언어발달 지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두 돌 반 지나고 세 돌 전에 또래보다 언어가 너무 늦었어요. 언어가 느리면 다 따라오더라고요. 신체적으로도 약간 느릴 수 있고요. 표현이 안 되서 몸으로 하니 언어가 안 되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영유아2)

말이 늦으니까 원 생활이 조금 힘들었어요. 친구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영유아6)

• 형제/자매/가족관계

- 동생이 새로 태어나서 환경의 변화가 생긴 경우나, 형제자매 간 잘 맞지 않아 다툼이 잦은 상황과 관련된 우려가 있었음.

조금 수줍어하는 성격이고, 기질적으로 약간 내성적인 아이라서 사교성을 기르도록 뭔가 해주고 싶었고, 동생이 태어났으니까 둘이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더 잘 지낼 수 있을지 생각했어요. (영유아1)

본인만 사랑을 받으며 지내다 보니 태어난 동생에 대한 배신감, 엄마, 아빠에 대한 배신감이 다른 아이보다 엄청나게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친구 사귀는데도 영향을 엄청나게 끼친 것 같아요. (초등3)

• 또래관계

- 또래와의 상호작용 중 갈등을 회피하거나, 정서 조절이 어려운 점, 타인의 정서인식이 어려워 관계 맺기가 어렵거나 상호작용 기술이 부족한 점이 보고됨.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생각과 다르면 막 화를 내거나 좀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요. 또래들 속에 들어가고 싶는데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같이 놀래? 같이 놀자,’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행동이 먼저 나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영유아6)

상대방이 자기한테 섭섭해 하거나 빠져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내가 미안해' 이렇게 바로 나오는 스타일인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친구가 자기로 인해서 속상해한다거나 하는 거 자체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초등3)

• 불안, 행동문제, 도덕성 관련

- 불안감이 높은 경우, 놀이 상황에서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경우, 친구들 물건을 허락받지 않고 가져오거나 장난을 치는 경우 등과 같이 정서 행동문제, 도덕성 발달과 관련된 걱정이 보고됨.

과격한 것 같아요. 약간 좀 형들한테도 까불고 약간 개구쟁이 스타일로 놀아요. 시비를 걸 정도는 아닌데 과격하게 노는 것 같더라고요. 놀이터에서도 그래서 좀 형들이 화가 나게끔 약 올리고 약간 좀 짓궂게 노는 것 같아요. (초등3)

학교에서 검사를 했는데 도덕성이 조금 결여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애가 친구 색종이를 집으로 가져온 거예요. 색종이를 친구들이 나눠주는데 색종이가 너무 예뻐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애가 혹시 사회·정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건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초등6)

라. 난점 수준별 부모의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우려

- ▶ 영유아 대상 척도로 강점·난점을 측정한 결과로 정서, 행동, 과잉행동, 또래관계에서의 난점 총합 기준으로 4그룹으로 나누고, 그 정도에 따라 부모가 응답한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영역 중 개선 희망 영역을 조사한 결과, 기질(24.6%), 정서조절(21.6%), 자아개념/자존감(20.8%) 순으로 나타남.
- 평균집단의 경우 기질에 대한 걱정이 가장 높았고, 난점이 높아질수록 정서이해 및 정서조절에 대한 개선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짐.

[표 8] 영유아 난점기준 그룹별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영역 중 개선 희망 영역

단위: %(명)

구분	기질	애착	정서이해	정서조절	자아 개념/ 자존감	또래관계 기술습득	공격성 완화	계(수)
전체	24.6	11.6	14.7	21.6	20.8	5.2	1.6	100.0 (708)
영유아 난점 검사								
평균 집단	25.8	10.3	13.1	19.3	25.3	5.6	0.6	100.0 (466)
다소 높은 집단	21.9	9.6	18.4	21.9	21.9	2.6	3.5	100.0 (114)
높은 집단	21.9	23.4	18.8	26.6	1.6	4.7	3.1	100.0 (64)
매우 높은 집단	23.4	12.5	15.6	32.8	4.7	7.8	3.1	100.0 (64)
$\chi^2(df)$				51.712(18)***				

*** p < .001

주: 정서+행동+과잉+또래관계 난점의 총합 기준, 0-12점: 평균집단, 13-15점: 다소 높은 집단, 16-18점: 높은 집단, 19-40: 매우 높은 집단

- ▶ 다음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대상 척도로 강점·난점을 측정된 결과로 정서, 행동, 과잉행동, 또래 관계에서의 난점 총합기준으로 3그룹으로 나누고,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영역 중 가장 발전시켜주고 싶은 영역을 보았는데, 자아개념/자존감 증진(27.4%) 이 가장 높았고, 정서조절(20.2%), 기질(19.5%) 순으로 나타나, 영유아 자녀와 비교에 차이를 보임.
 - 그룹별로는 평균집단의 경우 자아개념 증진이 28.9%, 기질이 20.4%로 높았던 반면, 경계선 그룹은 자아개념 증진(29.9%), 정서조절(22.1%) 순으로 높았고, 위험군의 경우 정서이해(20.8%), 기질(19.5%)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난점의 정도에 따라 개선을 희망하는 영역에 차이가 있음.

[표 9] 초등저 난점 기준 그룹별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영역 중 개선 희망 영역

단위: %(명)

구분	기질	애착	정서이해	정서조절	자아개념/ 자존감 증진	또래관계 기술습득	공격성 완화	계(수)	
전체	19.7	10.5	15.5	20.2	27.4	6.3	0.4	100.0 (704)	
초등 난점 검사									
평균(일반)집단	20.4	9.5	14.7	20.2	28.9	6.2	0.2	100.0 (550)	
경계선	15.6	11.7	15.6	22.1	29.9	3.9	1.3	100.0 (77)	
위험군	19.5	16.9	20.8	18.2	14.3	9.1	1.3	100.0 (77)	
$\chi^2(df)$					16.994(12)				

주: 정서+행동+과잉+또래관계 난점의 총합 기준, 0-13점: 평균(일반)집단, 14-16점: 경계선, 17-40점: 위험군

- ▶ 자녀의 사회·정서 문제에 대한 인식 경로를 심층면담을 통해 살펴본 결과 크게 1)부모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한 경우, 2)자녀의 보육·교육기관의 교사를 통해 들은 경우 3)병원 영유아 검진을 통해 알게 된 경우로 구분됨.

• 부모

- 부모가 자녀의 관찰을 통해 사회·정서 발달문제를 발견할 수 있으며, 관련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자기 아이니까 제일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이런 아이구나 이제 알고 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거의 맞더라고요. (영유아1)

아이가 발 두 발을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착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됐었어요. 말은 9개월에 엄마 아빠를 했고 말은 더디기는 했지만 좀 느리다 이 정도였지 이상하다 이 느낌은 별로 없었거든요. (영유아3)

• 자녀의 보육·교육 기관(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 선생님

- 보육·교육기관 및 학교 등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교사를 통하여 사회·정서발달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 부모의 생각과 다소 다르더라도, 교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녀의

상태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집에서는 전혀 불편함 없었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너무 오래 아이들에 비해 느리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영유아4)

애기 때 어린이집을 처음 갔을 때 계속 운다고 선생님이 한 번 좀 이렇게 센터나 이런 데 가보라 했어요. 너무 엄마 아빠 불화를 많이 봐서 좀 불안한 것 같다고 했어요. (초등4)

• 병원 영유아검진

- 0-72개월까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유아검진을 통해, 연령별 검사영역에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체, 언어, 인지, 사회성, 자조 발달 능력을 파악하고 체크해볼 수 있음.

영유아 검진을 할 때 설문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라고 하셔서 하게 됐어요. (영유아5)

병원에서 영유아 검진했을 때 저희 아이가 이제 말이 좀 늦다고 했어요. (영유아6)

4 정책 제언

가. 모든 아동을 위한 사회·정서 발달지원 강화 방안

▶ 현재 보육·교육기관 및 학교의 커리큘럼에는 사회·정서 발달학습 자체를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정서 발달을 하나의 학습대상으로 생각하고 학습 체계 마련이 필요함.

- 부모조사결과 전체의 90.2%가 사회·정서 학습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전체의 88.1%가 사회·정서 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사회·정서 학습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영유아의 보육·교육기관과 학교에서 제공하는 사회·정서 발달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1차적인 교육의 역할을 해야하며, 사회·정서학습을 통해 사회성발달, 정서이해, 정서조절 등 사회·정서 발달을 위한 학습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보육·교육기관과 학교에서 기본적인 사회·정서발달학습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통합적 커리큘럼 개발 및 확대가 요구됨.

▶ 사회·정서적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함.

- 현재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지원 체계내에서 살펴본 결과 건강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초등학교 내의 Wee 클래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매우 낮아, 1차지원으로서의 역할이 어려운 현실임.

▶ 연령과 지역에 격차 없는 유관기관 지원역할 확대

-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사회·정서 발달에 대한 우려가 크며, 이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에 대한 가이드가 없어 많은 사회·정서발달 행동 우려가 있을 경우 초기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령별 유관기관 지원현황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영유아 대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있는 반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의 초등저학년에 대해서는 사회·정서 발달을 전반적으로 지원할 체계가 부족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 사회·정서 발달지원 서비스 내실화 방안

▶ 사회·정서 발달 잠재적 위기군에 대한 대응 확대 (영유아, 초등)

- 사회·정서 발달은 양육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므로 부모가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녀를 돌봐줄 수 없는 취약한 환경에 있는 경우를 발견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현재 드림스타트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학교 및 보육·교육기관에서의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이 필요함.

▶ 정서행동 특성검사 후속조치 내실화 (초등)

-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정서행동을 모니터링하고 도움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 1학년과 4학년 시기에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학교의 위클래스 운영여부나 지방교육청의 지원예산 범위에 따라 다른 경향이 있어, 개선이 요구됨.

▶ 부모 대상 검사 및 상담 확대

- 부모조사에서 부모가 인식하는 중요한 발달 영역으로 전체의 57.1%가 사회·정서발달을 택하여, 사회·정서발달에 관심을 보였음.
- 그러나 사회·정서발달에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 부모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부모에 대한 양육스트레스 및 심리검사를 병행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함.
- 또한, 부모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상담에 대한 중요성 홍보 및 상담가능시간의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함.

다. 부모 대상 사회·정서 발달 인식강화 및 홍보 방안

▶ 사회·정서 발달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교육 강화

-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보건복지부, 2022. 12)에서도 계획 중인 ‘육아 건강·상담서비스 지원강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회·정서 발달의 중요성 및 사회·정서발달의 어려움에 대한 인정과 조기개입의 필요성 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적기에 치료가 필요함에도 문제 상황에 대한 부모의 동의가 부족하여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부모교육 등을 통해 교육과 인식개선이 필요함

▶ **부모가 가장 발전시키거나 개선하고 싶어하는 사회·정서 발달 영역으로 영유아의 경우 기질 및 정서조절, 초등저학년의 경우 자아개념/자존감 증진 및 정서조절 능력 등이 높게 나타남.**

- 영유아, 초등저학년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정서조절 능력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사회성을 키워나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학습 체계 마련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영유아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기질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질을 파악하고, 영유아의 기질별 양육 및 정서발달 학습방법 등을 고안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초등저학년의 경우 자아개념을 보다 스스로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 보임.

참 고 문 헌

- 보건복지부(2022).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보건복지부.
 - 김리진·조선화·채은영·홍서은(2024). 포스트코로나에서 유아 및 아동의 발달문제와 적응문제의 변화에 대한 연구: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놀이치료학회지, 27(3).
 - 황혜영·김수윤(2022). 포스트코로나시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을 위한 우리의 과제: 초등교사의 관점에서.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7(2).
 - 김지현·조숙인·김영민(2023).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지원 서비스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지현 연구위원 jhkim@kicce.re.kr

2024 KICCE ISSUE PAPER

양육실태와 정책 수요를 고려한
영아 양육지원 전략 및 정책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04535 서울 중구 소공로 70 9층
www.kicce.re.kr